

since 2000-2010 years

이종욱 WHO 사무총장 선출…한국의료 위상 높여 쓰나미·지진 피해 의료지원단 파견…원조 수혜국서 공여국 발돋움

2003년 이종욱 박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선출, 화제를 모았다. 2005년에는 김재정 의협 회장이 CMAAO 회장에 취임했으며, 2008년에는 신영수 WHO 서태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의협은 2003년 이라크 분쟁 지역을 비롯해 2005년 1월 동남아 쓰나미 사태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며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인류애를 전했다. 2005년 10월에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단도 파견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역과 2010년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아이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2008년에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의사회 서울총회를 개최, 세계 속에 한국의료의 위상을 알렸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DAC 가입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 의협은 2005년 2월 28일 의사면허 수여 및 의사윤리 선서식을 열었다. 의협은 1995년 <의사윤리선언>·<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을 제정, 개정을 거듭한 끝에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채택했다. <의사윤리강령>은 의료계 공식 행사와 의사 및 의전원 출연식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신 낭독하고 있다.



2005.03.21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com) 창간

2006.06.01
의협,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2008.11.15
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

▲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의료계 내빈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2007.03.21

◆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의협은 2007년 유사의료 행위를 양성화하고,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거센 저지 투쟁을 벌였다.

2003.01.28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당선	2003.06.26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금연 선포식	2004.04.26 범의료계 북한 용천의료 지원단 결성	2004.09.01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전개
---	---	---	--

2005.10.10 대한의사협회, 임신부의 날 선포식	2006.01.16 대한의사협회, <필수의학용어집> 발간
--	--

2008.09.22 신영수 WHO 서태 사무처장 당선
--

2009.08.24 의협,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발표
--

2002.07.10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폐지	2003.04.21 대한의사협회, 이라크 의료지원 선발대 파견	2003.11.21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창립총회	2004.04.30 대한민국의학 학림원 출범	2005.09.10 제24차 CMAAO 총회·김재정 CMAAO 회장 취임	2005.10.14 대한의사협회, 긴급의료지원단 파키스탄 파견	2006.04.14 대한의사협회, 의료봉사네트워크 발족식	2008.05.09 대한의사협회, 광우병에 관한 입장 발표	2008.10.15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 개최	2010.01.30 의협-대한적십자사, 아이티 의료 지원단 파견
--------------------------------------	---	----------------------------------	--------------------------------	--	---	--	---	-------------------------------------	--

2005.01.05
의협·병협, 동남아 쓰나미 의료지원단 파견



▲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에서 온 세계의사회 회장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1~3월 아이티 포르토프랑스 지역에 4차례에 걸쳐 긴급 의료지원단을 파견, 5474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

